

활용제목명	유기농 대파 하계재배 적합 품종					
연구개발자	소속기관	경기도농업기술원 (제2농업연구소)	성명	김대균	전화 및 e-mail주소	031)229-6102 tonecom@gg.go.kr
공동개발자	"	"	"	김성기	"	031)229-6181
	"	"	"	이은섭	"	031)229-6101
	"	"	"	조영철	"	031)229-6182

1. 연구성적('07~'08, 경기도원)

- 시험품종의 생육특성, 도복 및 검은무늬병 발병정도
- 시설재배

품종명	초장 (cm)	위경장 (cm)	위경폭 (mm)	개체중 (g)	도복 (1-9)	검은무늬병 (%)	상품수량 (kg/10a)	지수
묵창과 ¹⁾	92.6	26.7	16.8	134.7	3	3.9	5,666	108
장열흑대파	92.0	27.5	16.7	132.6	4	4.0	5,580	106
신희외대파	94.3	29.5	16.7	132.6	4	4.1	5,579	106
동경하흑과	92.3	28.6	16.7	132.1	3	4.4	5,557	106
흑금장외대파	90.3	27.9	16.5	130.0	3	3.8	5,467	104
금장외대파	90.0	27.8	16.2	128.4	4	4.5	5,256	100

1. '07 생산판매신고시 “무등외대파”로 품종명 변경.

- 노지재배

품종명	초장 (cm)	위경장 (cm)	위경폭 (mm)	개체중 (g)	도복 (1-9)	검은무늬병 (%)	상품수량 (kg/10a)	지수
묵창과	82.5	28.5	16.5	131.3	3	11.4	5,407	108
장열흑대파	82.0	28.2	16.3	129.2	4	11.3	5,319	106
신희외대파	82.7	28.3	16.2	129.8	4	11.1	5,345	107
동경하흑과	81.8	28.1	16.1	127.4	4	12.1	5,245	105
흑금장외대파	81.3	27.8	16.0	125.9	4	11.1	5,180	104
금장외대파	81.3	27.2	15.9	121.4	4	11.9	4,994	100

2. 적 요

- 유기재배 농가에서 선호하는 금장외대과, 흑금장외대과와 대등한 수량성과 검은무늬병 발생율, 도복저항성을 나타낸 품종은 묵창과(무등외대과), 장열흑대과, 신희외대과, 동경하흑과였음.

3. 개발기술의 활용방법

- 대과 유기재배시 안정성이 확보된 품종 선택 재배
- 대과 하계(춘과) 유기재배에 알맞은 품종 정보제공

- 품종별 특성
 - 묵창과(무등외대과)
 - 1대 교배종 과종시 생육이 왕성하고 재배가 안정적임.
 - 엽색이 농록색으로 두껍고, 초형은 입성임.
 - 연백부가 굵고 길게 자라며, 수량성이 높음.
 - 장열흑대과
 - 만추대성 품종으로 이듬해 5월까지 출하가 가능함.
 - 엽색이 진하며, 초형은 입성임.
 - 내서성, 내한성이 강하며 생육이 왕성하여 재배가 용이함.
 - 남부지방에서는 노지월동이 가능하나,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이 어려움.
 - 신희외대과
 - 만추계통의 외대과로 연중재배가 가능함.
 - 엽색이 짙고 광택이 있으며, 잎이 잘 부러지지 않음.
 - 초형은 입성으로 밀식이 가능하며, 수량성이 높음.
 - 내서성, 내한성이 강하며, 추대가 늦고 안정된 품종으로 적기출하가 가능함.
 - 동경하흑과
 - 엽수는 6-7개로 엽색은 농록이며 초형은 입성임.
 - 내서성, 내병성이 강하며 품질이 우수함.
 - 연백부가 길고 광택이 있고, 육질이 치밀함.

- 흑금장외대파

- 초세가 강하고 엽색이 농록색으로 짙은 금장계 외대파임.
- 초기 생육이 양호하여 실파로서도 특성이 우수함.
- 토양적응성이 넓고, 내한성이 강하며 다수성임.
- 연백부가 길고 단단하며 잎의 꺾임이 적고, 남부지방에서는 겨울동안 수확이 가능함.

- 금장외대파

- 일반 석창계에 비해 육질이 부드럽고 품질이 우수함.
- 연백부가 곧고 길게 자라며, 초형은 입성임.
- 기부가 충실하여 바람에 잘 견딤.
- 내한성이 약하므로 중부지방에서의 월동재배는 피하는 것이 좋음.

○ 재배시 주의사항

- 배수불량지, 척박토, 과습지, 너무 건조한 밭에서 재배시는 연백부가 짧아지며, 분얼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배지 선정에 주의해야 함.
- 포장이 침수되거나 배수가 불량할 경우 파의 생육이 불량해지므로 침수시 신속한 배수가 요구됨.
- 중부지방에서 노지 월동재배는 피하는 것이 좋음.